美, 우크라戰 종전 속도…마이애미서 우크라·러 연쇄회동

우크라 "美 종전 협상 성공 못 하면 우리는 다른 선택지 고려"

러 대표단 "전쟁 부추기는 세력이 美 종전안 무너뜨리려 노력"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대표단과 연쇄 회동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참여하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마이애미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만난 데 이어 이르면 20일 이곳에 도착한 러시아 대표단과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루스템 우메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이끌었으며, 러시아 대표로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나섰다.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러시아 기자들에게 "논의가 전설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논의가 시작됐으며 오늘 계속되고, 내일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아 노보스티 통신이 전했다.

미 대표단은 지난 14-15일 독일 베를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유사한 수준의 안보 보장 방안을 제시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반대하는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미국 주도의 종전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 다른 선택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 간 3자 회담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에게 "미국이 현재 국가안보보좌관급 3자 회담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런 회담이 전쟁 포로 교환이나 3자 정상 회담 합의로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린 그러한 제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측 드미트리예프 특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마이애미로 가는 중"이라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 대해 "폭풍 구름을 뚫고 나오는 빛"이라며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우크라이나를 위한 미국의 평화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 밤낮 없이 움직이는 가운데 나는 예전 (미국) 방문 때의 이 영상을 떠올렸다"고 적었다.

/연합뉴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우주 비행을 한 미카엘라 벤타우스(33)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서부 텍사스에 착륙한 블루오리진의 뉴셰퍼드 우주선 캡슐에서 내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휠체어 장애인 첫 우주여행…"지금껏 가장 멋진 경험"

블루오리진, '접근성' 고려 우주선 개조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처음으로 우주여행에 나섰다.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은 독일의 장애인 엔지니어 미카엘라 벤타우스(33)가 5명의 동승자와 함께 자사 뉴셰퍼드 NS-37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우주의 경계선인 카르만 선을 넘어 비행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골수암을 극복하고 다리에 보철물을 삽입한 장애인 헤일리 아르세노가 2021년 스페이스X 우주선에 탑승했고, 뉴셰퍼드의 이전 비행에도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참여한 바 있지만 휠체어 사용자가 우주로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유럽우주국(ESA) 엔지니어인 벤타우스는 2018년 산악자전거 사고로 척수가 손상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블루오리진은 그의 탑승을 위해 우주선 캡슐 해치에서 좌석까지 오갈 수 있는 환자 이송용 보드를 설치했다.

또 착륙 후 서부 텍사스의 사막 지면에 카펫을 깔아 그가 발사 때 남겨둔 휠체어에 곧바로 탈 수 있도록 했다.

블루오리진은 자사 우주선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등 애초에 접근성을 고려해 설계돼 몇 가지 사소한 조정만 거쳤다고 설명했다.

벤타우스는 약 10분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착륙한 이후 "솔직히 지금껏 겪은 일 중 가장 멋진 경험이었다"며 "나와 같은 사람에게 문이 열리길 바란다. 내가 시작에 불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우주 비행에는 역시 독일인이자 전 스페이스X 임원인 한스 쾨니히스만도 동행했다.

벤타우스의 우주여행을 제안하고 후원한 쾨니히스만은 비행 중 벤타우스의 비상 보조자로 지정됐고, 착륙 이후에도 그를 캡슐에서 들어 올려 짧은 계단을 내려왔다. /연합뉴스

인도 열차가 코끼리떼와 충돌…7마리 '폐사'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열차가 철로를 건너는 코끼리 떼와 충돌해 코끼리 7마리가 폐사했다.

21일(현지시간) 아삼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아삼주 주도 구와하티에서 남동쪽으로 약 125㎞ 떨어진 지역의 철로에서 열차가 코끼리 떼와 충돌했다.

북동부 미조람주에서 출발해 뉴델리로 향하던 이 열차의 기관사는 약 100마리의 코끼리 떼를 발견하고 비상 제동을 시도했지만, 열차가 일부 코끼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끼리 7마리가 현장에서 죽고 새끼 1마리가 다쳤다. 또 객차 5량이 탈선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이후 철도 당국은 탈선한 객차의 승객 약 200명을 다른 열차에 태웠으며, 해당 구간을 지나는 열차들을 다른 노선으로 우회해 운행하고 철로 복구 작업을 벌였다. 또 폐사한 코끼리를 부검하고 매장했다.

철도 당국은 코끼리가 자주 지나가는 구간을 코끼리 통로로 지정해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사고가 난 곳은 코끼리 통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열차가 코끼리 떼와 충돌해 코끼리 7마리가 폐사한 현장. /REUTERS=연합뉴스

사고가 난 아삼주는 야생 코끼리 약 7천마리가 서식해 인도에서 코끼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다. 2020년 이후 아삼주에서는 최소 코끼리 12마리가 열차에 치여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캐나다 대형마트 침입 '산타 도둑'…"훔친 음식 나눠줄 것"

'현대판 로빈 후드' 자처 단체 소행

빨간 옷을 입고 새하얀 수염을 단 '산타'들이 늦은 밤 캐나다 몬트리올의 한 대형마트에서 수천달러(수백만원)어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났다.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들의 정체는 '골목의 로빈들', 즉 '현대판 로빈 후드'를 자처하는 단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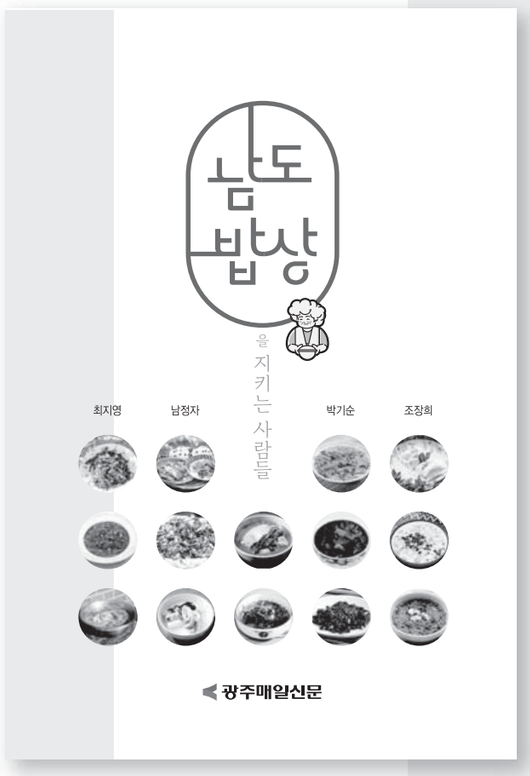
이들은 18일 '배고픔이 수단을 정당화할 때'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훔친 식료품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밝혔다. 식료품 중 일부는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두고, 나머지는 지역 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배분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대기업의 폭리로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하기 어려운 '생활비 위기'를 강조하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구실삼아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대형 슈퍼마켓 체인에서 음식을 사기 위해 점점 더 힘들게 일해야만 한다"며 "기업들이 최대한 이익을 챙기기 위해 점점 더 시민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온타리오·퀘벡주에서 8개 주요 식품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 메트로는 성명을 통해 "절도는 범죄 행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도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